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와 교육 ㉑

# 이웃과 자연 서로 의존... 미래성찰 교육

### 자연과 이웃을 위한 성찰적 인간형

생태주의 교육은 경쟁을 강조하면서 학벌과 학력을 쌓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교육에 반대한다. 더불어 협동하며, 자신의 지식과 정보, 능력을 남을 위해 이용하도록 하고, 이웃과 자연, 미래세대에 대한 보다 성찰적인 인간,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 자신만이 아니며 모두 서로 의존하며 산다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 그에 기반한 행동과 삶을 살도록 전인 교육을 하는 것이 생태주의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최근 군산 동국사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주지 종걸 스님과 대화 하다가 스님이 거창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창고는 세계적인 지휘자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보낸 학교로 유명하다. 대안교육을 주장해 온 전교조운동의 주요 핵심 인원 대다수가 이 학교 출신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이야기이다.

거창고는 1953년에 설립된 개신교학교이다. 즉 미션 스쿨인 셈이다. 미국서 유학하고 돌아온 전영창 선생이 큰 뜻을 품고 가난한 시골학교를 오늘의 명문사립학교로 올려서게 만들었다. 물론 여기서 명문사립이라는 뜻은 한 학년에 120명 중 1/4이 서울의 명문대를 가는 학교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2012년 현재 200여개가 운영 중인 대안학교의 역사속에 흥성 풀무학교, 영산성지학교와 더불어 맨 앞을 장식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학생들은 교훈 이외에 매일 아침에 외우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학교를 더 유명하게 만든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훈'이다.

### 거창고 직업선택 10훈이란?

10훈의 첫 번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이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선호하는 학벌사회를 역행하는 지점이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잘 쓰이도록 하라는 말이다.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셋째는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이다. 이는 경쟁에서 이기고 계층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위로만 쫓아다니는 시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이다. 어느 곳에서든 새 영역을 개척하고 시대를 여는 모험을 서슴치 말라고 한다.

다섯째는 '알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고 한다. 이 사회의 유행과 흐름을 좇지 않고 사람이 없는 새로운 영역을 위해 투신하라고 한다. 여섯째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는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는 '왕관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이다.

그런데 정말 기가막힌 것은 다음이다. 아홉째로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이다. 이 교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고 마무리한다. 강력한 교훈이다.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벤처(Venture 모험)를 원하지만 부모나 배우자들은 그저 순탄히 남이 가는 보장된 길로 가길 원한다. 그러나 부모나 배우자들이 원하는 삶은 사회에서 바라는 삶이 아니다. 따라서 모험적 삶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나 가족들이다. 이 교훈은 그러한 강력한 반대를 거침없이 뚫고 자신만의 길로 자신있게 가라고 한다.

### 현재 한국 대안학교 200여 개

- 거창고, 대표적 대안학교
- '거창고 직업선택 10훈' 유명
- 학교출신들 사회곳곳서 두각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교훈이다. 이 교훈을 매일 낭송하는 학교 다보니 이 학교 출신들이 사회곳곳서 활약하고 두각을 드러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학교가 사실은 가장 보수적인 개신교인 '고신' 파지만 오히려 가장 열려있는 학교여서 이 학교출신 중에 종걸 스님외에도 출가하신 분이 꽤 여럿이라고 한다. 더욱이 이 학교에서는 출가한 스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요청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

영국의 대안학교 '섬머힐 스쿨' 전경. 일본 역시 이들의 교육 취지를 받아들여 '기노쿠니 학교'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놀이와 창조, 체험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준다.

이들은 놀이와 창조, 그리고 체험을 중심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학교이다. 그리고 또 유명한 대안학교로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에 의해 시작된 '발도르프학교'가 있다. 슈타이너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신적 변화과정에 맞춰 고유성과 개성에 따라 교육하고, 수공예와 예술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좋은 자연과 환경



2012년 하노버 교육박람회에 참가한 발도르프 학교 코너에서 학생들이 수공예 실습을 해보고 있다. 발도르프 학교는 수공예와 예술활동을 중시하는 세계 유수의 대안학교이다.



영국의 대안학교 '섬머힐 스쿨' 전경. 일본 역시 이들의 교육 취지를 받아들여 '기노쿠니 학교'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놀이와 창조, 체험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준다.

인식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오히려 입학을 위해 3:1 또는 4:1의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 대안학교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이 대안교육의 전례는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A.S 닐이 설립한 영국의 '섬머힐' 학교가 있고, 일본서 섬머힐 학교의 취지를 이어 받아 설립된 '기노쿠니 학교'가 있다.

과외의 접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방과 본보기기를 통해 상상력을 중요시하는 교육으로 유명하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은 학교교육 밖에서 실행되는 학교를 소개한 것이지만, 이외에 학교자체를 거부하면서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안에서 교육하는 '홈스쿨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학교'라는 인식을 벗어나려는 것이다. 실제 현재와 같은 공교육, 학교교육 이전에 교육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실시해왔다. 이것을 근대적인 학교가 떠맡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보다 훨씬 오래된 교육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1월에 창간된 대안교육잡지 '민들레'를 중심으로 '홈스쿨링'은 크게 확대되는 중이다. 최근 미국에는 속세에 물들지 않는 기독교

### 영국 '섬머힐', 일본 '기노쿠니' 등 놀이·창조 중심 대안학교 인기 가정·공동체교육 홈스쿨링 관심 지역기반 평생교육 활성화 필요

교육을 위해 홈스쿨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바람직한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우리 역시 종교적 이유나 조기영재교육의 일환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 방과후대안학교의 모델이 있다. 또한 제도권 학교자체를 대안적으로 변환시키는 혁신학교로 최근에 유명한 성남 남한산초등학교를 비롯해, 고양시 덕양중학교를 필두로 경기도만도 71개로 확대되었다.

특히 진보적 교육감이 선출된 곳을 중심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 23곳, 광주 4곳, 강원 9곳, 전북 20곳, 전남 30곳에서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현재 공교육의 폐해를 극복하며 새로운 교육으로서의 시도이지만, 그것이 결국 학벌과 학력사회를 극복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안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현재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또 다른 형태의 대안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육아는 2010년 현재 전국에 약 61개가 있고, 51개의 방화후교실들이 있다.

이외에도 새로게 시도되는 교육으로써 '산촌유학'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산촌이나 농촌에 아이들을 보내 그곳의 초등학교를 다니게 하고 방과후에는 오감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도 있고, 농가에서 홈스테이 형태로 머무르면서 방과후, 토, 일요일 모여서 진행되는 교육도 있다. 도시에서 자연을 잊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체험과 경험을 위해, 제도의 학교교육을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산촌유학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경쟁의 교육서 인간에 대한 교육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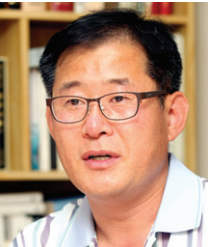
이제 모든 대안적 교육은 곧 지역의 일꾼 지역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과거 풀무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20-40%를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뽑는다. 학교는 지역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을 지키며 지역을 가꾸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의 반영이다. 물론 아직 한국에서는 현실성이 적지만,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지점이다. 지역학교일때는 커리큘럼도 지역의 역사, 지역의 지리, 지역의 전설과 인물탐방 등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깊이하는 다양한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은 사회적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의 환경조건속에 배우지 못할 곳은 없다.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한 평생교육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실제 최근에 곳곳에 많은 평생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훈에는 세상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라고 하고, 세상의 이익을 좇지 말고 오히려 거슬러 새로운 길을 만들어, 사서 고생하는 길, 주변이 반대하는 길에도 의심없이 가라고 가르치는 학교이다. 창조적 소수의 개혁, 봉사, 희생정신이 깃들여 있다. 생태교육은 환경교육이 아니다.



서로 의존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생태교육인 것이다.



유정길 (예코부터) 전 공동대표 생태사회연구소 연구원



## LEADER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맘 흘리는 불계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계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를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모집